

한강유역환경청, 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

한강유역환경청은 금년 7월부터 공무원의 토요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휴무일에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있으며, 환경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수사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휴무일 특별단속은 연휴기간의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토요일휴무일 점검 4회(7월~9월), 야간점검 1회(9월) 등 총 5회를 실시하였다.

지자체에 대한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는 한강환경감시대가 활동을 시작한 '98년부터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8월말부터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인 강원도 정선군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 4명에게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강환경감시대에서는 토요일무제 실시에 따라 배출업소에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취약시간대에 오·폐수의 무단방류하는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를 원하는 지자체 대하여는 수사기법에 대한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밀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량 대폭 줄어든 듯,

환경부에서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료 품질 항목인 밀도기준을 강화(815~845)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온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밀도 강화기준안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되는 자동차 업계와 정유업계를 같이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실증시험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양 업계 모두 만족하는 객관성 있는 밀도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번 밀도 강화기준안의 특징을 보면 현행 기준 하한값은 그대로 두고 상한값만 10을 줄이는 것으로, 밀도는 가능한 상한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연료의 경질화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하한값을 낮출 경우 탄소함량이 적어져 자동차의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참고로, 밀도농도는 균일할수록, 즉 밀도의 상·하한값의 폭(범위)이 좁을수록 연료 연소상태가 좋아지므로, 이번에 밀도폭을 40에서 30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밀도기준이 강화되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가 최소 4%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실증시험결과 나타남에 따라,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총 발생량 30,363톤/년('03년 기준)의 4%인 1,215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간 3,669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아울러 경유 밀도기준 강화와 이미 입법화된 황함량기준 강화(430→30ppm)로 경유환경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금년부터 출시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매립장 유지용수로 빗물 이용

지난 7일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개최된 「제5회 빗물모으기 국제워크샵」에서 우리나라 빗물이용기술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와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소장 한무영교수)가 공동연구하여 발표한 것으로, 폐기물 매립장 상부면에 떨어진 빗물을 모아 1년여간 실험한 결과, 이 빗물로 매립장에 필요한 조정, 세분용수 등 일 4천톤에 달하는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세계최초로 폐기물매립장에서 빗물을 이용한 저렴한 비용의 친환경 용수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녹지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등 환경테마공원 조성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사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다른 녹지지역이나 용수공급이 필요한 도서지역, 산간마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공사, 맑은 물 공급위해 상수도시설 개선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가 신규 택지개발 사업시 입주민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친환경성 자재 도입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불신과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단지내 상수도 세척장치 도입 등 상수도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수도관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인체무해한 친환경성 자재여부를 검토후 설계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공사는 상수도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수관로내 관세척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지구 준공후 주기적인 상수도관 세척을 통해 상수도관내 유해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수돗물의 2차오염에 따른 미생물막을 제거함으로써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도관의 위생성 유지 뿐만 아니라 관의 수명을 연장시켜 노후화에 따른 관교체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더불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 유지 관리체계 구축 등 친환경적 단지 조성을 통해 토지공사 조성택지의 독창성과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택지를 조성 공급토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EU 환경규제 국내업체 적극 지원

산업자원부가 25개 EU 회원국들의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한국전자전’ 기간 동안 친환경과 관련한 홍보관 운영과 관련 세미나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자부는 EU 지역 환경규제와 관련해 “이미 영국, 프랑스 등 25개 회원국이 내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자제품의 역내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전자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전 세계 업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만큼 빠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 시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으며, 전자부품과 핸드폰·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접합기술 등 실제적인 적용사례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수원(주),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 이중재)은 지난달 9월 26일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은 환경부에서 녹색구매 확산과 친환경상품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주요 수요주체인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협약에 한수원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LG 전자, 포스코 등 3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녹색구매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제도이며,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마크 상품과 우수재활용마크 상품 등을 말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환경마크 상품인 전력기기, 사무용품과 우수재활용마크 상품인 생필품 등 약 5억원 상당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였고, 금년에는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금번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물품 구매 시 해당 친환경상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구매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내규정을 검토·정비하고, 구매실적을 평가·공개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본 협약체결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산·소비문화 확산을 촉진 수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제정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 연구·탐구분야와 환경보전 실천분야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 한강 유역환경청장상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들은 물론 학교 및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교육·활동 및 탐구분야에 새로운 인식 제고를 가져 오고,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실천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초·중·고)이며 개인과 그룹 누구나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2005. 12. 1~2006. 1. 23까지

이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은 2006. 2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시상내용은 대상 한명에게 환경부장관상 및 부상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 및 부상 각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부상 각 50만원씩 주어진다.

해양수산부, 순천·보성갯벌 램사습지 등록 추진

우리나라 갯벌로는 처음으로 전남 여주만에 위치한 순천·보성갯벌이 국제적인 습지관련 기구인 램사(RAMSA)협약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연경관, 국제적 보호조류의 수, 관리시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천만갯벌과 보성별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합해 램사협약 습지등록 대상지로 선정, 이번 달 초에 등록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순천만과 보성 갯벌은 갈대숲과 칠면초, 어류 등 종다양성이 풍부하며 특히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서 램사협약 습지로 등록될 경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갯벌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갯벌은 미국동부 및 캐나다 동부 갯벌과 아마존하구 갯벌, 유럽의 북해연안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램사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한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 6년간 실시한 갯벌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갯벌 지역을 선정해 램사협약에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램사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2월 28일 가입했다.

이 협약 가입국은 환경보전에 대한 자국의 위상제고를 위해 램사습지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제까지 146개국의 1462개의 습지가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갯벌이 아닌 육지습지 중 경남 창원시의 '우포습지'와 강원도 대암산의 '용늪', 전남 신안군의 '장도습지'가 랍사협약에 등록돼 있을 뿐이다.

환경부, 내년부터 순환골재 10%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 중 10%는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공동 고시안'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 건물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가 4km 이상 도로 신설 및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용지 조성사업 등 총 6종류로 설정돼 있을 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쓰이는 골재 가운데 10%를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1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순환골재 사용 효과와 수급 현황을 분석해 내년 이맘때쯤 사용비율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순환골재는 자연골재보다 경제적 효용가치가 40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중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량은 1000만㎡이며 골재업계의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은 600만㎡로 집계됐다.

정부, 환경서비스업 유망분야 육성

내년에 환경건설팅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이 융자된다. 조건은 10년 거치에 이율은 3.25%. 이와 함께 재활용업 육성 융자자금 이자율도 현재 연 3.7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20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

난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건설팅업 등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등 유통 전반관리에 전자태그(RFID)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동·서남아 지역 현지설명회 개최, 공동 기술개발,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동·남미지역 등은 환경시장 여건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우리나라 하천이 더 맑아진다

침출수, 염색폐수 등 악성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환경신기술이 개발돼 수처리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주변의 하천이 더욱 맑아질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그동안 침출수 처리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침출수처리 환경신기술을 획득했다”며 “이 기술은 무산소조, 질산화조, 침지식 한외여과막 분리 및 전기산화공정을 이용한 침출수 처리기술로써 지난 해 4월부터 공사와 한외여과막 전문업체인 (주)새한과의 공동연구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지난 8월 산화응집공정 개발에 이은 세계 최고수준의 수처리기술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 오던 색도를 거의 상수 수준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약품처리가 필요 없는 전기산화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슬러지 발생 등 2차 처리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